

절대 불가능 앞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복음으로 여는 스바나-

스바나 3:17, 마태복음 1:21-23

정윤돈 목사님

* **삼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마1:21-2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허망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황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드러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절대계획과 하나님의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레마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말씀성령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우리는 왜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WRC 리더수련회 메시지에서는 300%를 넘어 무려 1,500%의 응답을 이야기했다. 성상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이미 300%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300%의 응답이란, 곧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내 건강만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보살펴 줄 수 있을 만큼 목표를 두고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나의 전문성이 경제계 시스템이 될 정도로 현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진정으로 현장을 아는 사람은 알래스카의 얼음판에서도 냉장고를 팔고,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모래를 판다. 실제로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부드러워 건축용 골재로 쓸 수 없기에, 건축용 모래를 사막으로 수출하여 파는 사업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장과 시스템을 알아야 경제의 응답을 받는다. 혼자서만 발바둥 치면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자립하여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협회본부의 시스템을 보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어찌 헌신과 회비, 그리고 은혜의 톱니바퀴 없이 거저 돌아가겠는가.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성도들은 말씀300%, 기도300%, 미션300%, 경제300%, 그리고 하늘보좌의 배정300%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만,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를 24시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25시 영원토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300%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의식주를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간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목표는 이루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과거 고아원과 장애인시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기에, 내가 구원받고 누리는 작은 일상조차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축복인지 절실히 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행복을, 성공을 우리 힘으로 찾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릴 '영적 황제'의 신분을 가졌다. 어린 시절,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으며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강렬한 자부심이 있었다. 세상 친구들이 욕을 하고, 본드를 흡입하고 마

약을 하며 타락의 길로 끌려 다닐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 서밋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길 바란다.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나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이면계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서론

오늘 스바나 선지자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인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떼어 고쳐서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자녀가 아무리 말쑥을 피우고 부족해도 부모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듯,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다. 이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공도 부럽지 않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말라. 10년 넘게 우리 장애인시설에 자원봉사를 오던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의 저명한 음대 교수들이 계셨다. 무대 위에서 음악을 할 때는 한없이 멋있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눠 보면 과거의 묵은 상처를 꺼내며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하소연하고 서로 치졸하게 다투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뿐이었다. 심지어 어떤 서울대 교수는 자녀의 일시 부정을 해서 봉사활동 증명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오기까지 했다. 돈과 성공 앞에서는 세상 엘리트들도 다 이처럼 연약하고 무너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한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영적 황제로 만드신 전능자이시다. 본문 스바나 3장 17절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선포한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려려 찬양을 부르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과거 성절 스님은 불교의 깊은 도를 닦은 끝에 "석가모니도 지금 지옥에 있고, 나 역시 지옥으로 갈 것이다"라는 뼈아픈 진실을 유언으로 남겼다. 평생 고기도 먹지 못하고 벽을 보고 수행하며 번뇌만 깊어진 채 평생을 버려도, 진리를 찾지 못하던 지옥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신앙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의 여정이 된다. 신학원을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체험이 있었기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고 순교의 길까지 가까이 걸어갔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속지 말라. 내가 주인된 다른 동기, 이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동기이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

스바나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태어난 고귀한 왕족이었다. 당시 귀족처럼 백성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을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한 사탄의 나라에 맞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스바나'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숨겨둔 자, 감춰둔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우리 역시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서면 감독의 눈이 자연스레 그에게 머물 듯,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 목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사랑스럽게 머무는 참된 영적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300%가 되는 것이다. 자연스레 나타나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하는데 핑계이다. "언약을 듣지만 해도 응답받는다"는 리더메시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한 번도 내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맺어본 적 없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이 언약이 맞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 받고 메시지 듣고 어려운데?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어찌 체육관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를 만났나. 큰 아들은 부산의 명문 영예고등학교 1차에 합격해 카이스트 진학을 목표로 공부만 하는 아이인데, 공부가 전혀 어렵지 않다며 억지로 운동을 끌려온 아이였다.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에 뜻이 없어 부모가 전 세계 30여 개국을 여행하며 공부하는 '하반하(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면서 살자)'라는 대안학교(하반하 세계여행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지금 이집트 홍해 바다에서 스핀 크루바 자격증을 따고 새까맣게 탄 얼굴로 보타를 타며 터키로 향하고 있더라 사건을 보여주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부모조차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주기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언약의 여정이 어찌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겠는가. 힘들기만 하다면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찾아 누리는 랩텐트가 되기를 바란다.

1.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이유

1) 스바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선포하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시대에 네피림과 폭력, 우상숭배에 빠진 타락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창6:6-7). 하나님이 이토록 극도로 진노하시며 재앙을 경고하신 이유가 1장 4절부터 6절에 낱말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라고 하셨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는커녕, 오직 눈앞의 떡고물과 성공만을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붙이며 우상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10:22)"라는 말씀을 붙잡고 근심 없는 재물을 기도하셨다. 비록 평생 밋을 지고 재물을 없였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근심, 걱정 없는 참된 평안의 복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다.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을 짊어진다고 했다. 아무리 천문화적인 돈을 벌어도 매일 고소, 고발과 사기꾼들에게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인가. 응답과 축복을 받지만, 근심거리가 없고 참 행복과 참 평안 누리길 바란다. 성경

에는 부유한 아브라함의 복도 있고, 평생 거지로 살다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응답도 있다. 서울역에서 500명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과거 강폐출신 목사님께 후원금을 보내며 "제가 조만간 그곳에 가서 노숙하고 거지같이 살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100배 낫다는 거지 나사로의 설교를 하겠습니까"라고 농담 받, 진담 반의 인사를 건넸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 거지 나사로가 아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빛의 경계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연한 응답받기를 바란다.

둘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라고 하셨다. '그마림(그림)'이란 '타오르다, 달아오르다, 열정적으로 흥분하다'는 뜻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광란의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나 사면 같은 우상 제사장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흑암과 귀신문화에 미쳐버린 내파림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멸절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고 받으시길 바란다.

셋째,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이는 별을 보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들과 그 추종자들을 말한다. 영세 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알박한 피조물에 불과한 별자리 운세에 내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넷째,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기러기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신다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혼합주의를 뜻한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다. 교회에 와서는 겉으로 복음을 외치면서도, 돌아서면 나의 오래된 고집과 아집,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섞인 복음, 망할 복음이다. 세상 지식과 잔머리로 무장한 자유주의신학(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민주신학 등)이 유럽과 남미의 수많은 교회를 텅텅 비우고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탄과 죄와 지옥권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할 수 있다.

다섯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예배를 멸시하고 헌신과 전도, 선교를 외면하는 이른바 '가나안(안나)' 성도들이다. 거룩한 예배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거나 피식피식 웃으며 딴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 예배의 축복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으로, 참 감사로, 참 기쁨으로, 영원한 진리로 결론내고 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여섯째,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오직 나의 쾌락, 돈, 마약, 술, 자존심이라는 창세기 3장의 우물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자상태의 영혼들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서 수천 조의 돈을 긁어모으며 아이디어를 창출했다한들, 결국 불치병에 걸려 앙상하게 말라 죽어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관찰과 공수를 찢러 쪼개어(히4:12),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내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 영적 수술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는 마치 암 덩어리를 도려내고 치료하는 생명의 광선, 골 레이저와 같은 말씀의 '빛'의 광이다. 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병을 완전히 도려내고 영육 간에 온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차유 받아야 한다. 우리는 237개 나라와 세계를 살려야 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안의 그 더럽고 나쁜 영적 문제들을 절대 간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내버려야 한다.

2) 이어서 하나님은 1장 7절부터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2장에서는 주변 국가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모압, 암몬, 구스, 앗수르의 니느웨까지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다. 이는 곧 스바냐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른 채 멸망해가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의 천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만난 한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남태평양 14개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누아투에서 태권도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제자 5명을 한국 훈련에 초청하고 싶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비행기 티켓 값만 1인당 수백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거액을 후원할 힘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후원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전액지원을 받고 오게 되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정성껏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로 당회를 통해 예산을 결의했다. 통가 왕국의 왕족출신 엘리트들도 이번 훈련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20)"는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름을 위유기도 어려운 남태평양 램뎀트들을 만나면 꼭 함께 셀카를 찍고 이름을 적어두며 만남의 축복을 기록하는 영적 세계화의 300%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2.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이처럼 절대 불가능한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1) 첫째, 구원의 방법은 오직 "모이는 것"이다. 스바냐 2장 1-2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라도 모일지라도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도"라고 하셨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악 속에 뒹구는 우리일지라도 예배의 자리, WRC의 훈련자리, 다락방과 지교회에 생명 결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과 구원의 날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2) 둘째,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습2:3)"고 하셨다. 복음을 가졌다면 불법과 편법을 버리고 정직하게 정의의 길을 가야 한다. 사업을 하며 편법의 유희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무너지고 파멸하게 된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법을 지키는 길, 정의로운 길, 겸손한 길, 헌신과 섬기는 길, 공평의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진짜 영적 서밋의 길이다.

3)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때에"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하셨다. 쓰레기 같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정결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가족, 후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한다.

4) 넷째, 3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신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고 하셨다.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다. 우리는 교만하니가 예배도 집중 못 하고 딴 짓하고, 교만하니가 전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가 기도도 안 하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만하니가 불평불만하고 교만하니가 우울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태이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술하여 영적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5) 다섯째,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하셨다.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NGO사역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사회복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약속이다.

6) 여섯째, 남은 자 램뎀트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습3:13)" 입만 열면 나를 포장하기 위해 과장하고 거짓말하던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되길 바란다.

7) 일곱째, 마침내 하나님은 3장 17절의 위대한 찬양을 선포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주인공삼아 기쁨의 찬양을 올리시는 이 가슴 벅찬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8) 여덟째,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습3:19-20)"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을 짜서 1조 원의 순이익을 얻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인턴십을 맡아 영적인 팀을 만들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한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며 그 깊이와 높이를 깊이 알아갈 때 모든 지혜와 지식, 심지어 AI로봇시대까지 다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역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준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완전한 결론이 날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위해 팀을 이루어야 한다. 복음과 전도, 사업 등 모든 것에는 든든한 팀을 이루어야 세계화할 수 있다. 미국의 거대한 빅테크기업들을 보라. 다들 두 사람씩 친구가 팀을 이루어 시작했다. HP는 휴렛(Hewlett)과 팩커드(Packard)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최초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스티브 워즈니악과 기술과 영업을 나누어 팀을 이루었고,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팀이 되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 팀만 이루어서 서로 원수가 되고 배신하기 일쑤이다. 혼자서 황제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모여 미션팀을 만들고, 전문 사역을 펼치며, 두세 사람이 지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 곧 세계복음화와 모든 분야를 정복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만남을 누려야 한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누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저녁에는 영원한 축복으로 남길 작품과 준비와 공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으나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스바냐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시대적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기 때문이다.

결론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 속에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바란다. 나아가 스바냐의 언약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모든 성도들과 램뎀트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게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의 영적 시간표에 따라 붙잡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소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여 300%의 응답을 누리고, 세계를 살려낼 성상위임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